



유도 이준환, '세계 최강' 메치고 金

유도 남자 81kg급 간판 이준환(포항시청·세계랭킹 6위)이 '세계 최강' 나가세 다카노리(세계 8위)를 꺾고 그랜드슬램 우승을 차지했다.

이준환은 10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국제유도연맹(IJF) 카자흐스탄 바리시 그랜드슬램 2025에서 나가세를 연장전(골든스코어) 접전 끝에 말아업어치기 한판승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나가세와 치열한 싸움을 펼치다가 정규시간 1분 19초를 남기고 지도(반칙) 1개를 뺏겼다. 정규 시간 10초 전에도 지도 1개씩을 나눠 가졌다.

유리한 상황에서 연장전에 들어간 이준환은 적극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였다. 끊임없이 공격을 시도하며 나가세를 흔들었다.

국제유도연맹 그랜드슬램 우승
연장전 日 나가세 업어치기 한판
파리올림픽 銅 이후 기량 '쑥쑥'

연장전 45초엔 기습적인 왼손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이준환은 있는 힘을 다해 상대를 넘어뜨리려 했으나 여의찮았다.

이준환은 옷매무새를 갖춘 뒤 곧바로 상대 허를 찌르는 왼손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이번엔 몸을 낮춘 채로 상대 몸을 들어 올렸다. 깨끗한 한 판이었다.

이준환은 환호하며 두 손을 불끈 쥐며 기쁨을 표현했다.

나가세는 국제대회에 자주 출전하지 않아

세계랭킹이 높지 않지만, 굵직한 국제 대회마다 우승을 차지한 이 체급 최강자다.

그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땀고, 2020 도쿄 올림픽과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이 체급 2연패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준환은 나가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준환은 시니어 국제 무대에 데뷔한 2022년 6월 올림바토르 그랜드슬램에서 나가세를 업어치기 절반승으로 잡으며 결승에 올라 우승을 차지했고,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선 8강에서 나가세를 누르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이준환은 지난달 아시아 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이준환이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국제유도연맹 카자흐스탄 바리시 그랜드슬램에서 일본 나가세를 연장 접전 끝에 말아업어치기 한판승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국제유도연맹 홈페이지 캡처

벤치 지켰지만... 김민재, 두 번째 빅리그 우승 트로피 '번쩍'

뒀던, 2년 만에 분데스리가 우승
김, 발목 부상으로 출전 못했지만
철벽수비·득점에 세리머니 주연
2년 전 세리에A 이은 리그 제패

'철기둥' 김민재(뮌헨)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지난 5일(이하 한국 시간) 2024/2025 분데스리가 우승을 확정지은 김민재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은 11일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뮌헨글라트바흐와 33라운드를 치른 뒤 우승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2023/2024시즌을 앞두고 뮌헨 유니폼을 입은 김민재는 올 시즌 뮌헨에서 처음으로 리그 우승을 경험했다.

2022/2023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나폴리의 33년 만의 우승에 기여한 그는 빅리그 두 곳에서 우승한 첫 한국 선수가 됐다.

뮌헨으로서는 2년 만의 왕좌 복귀다. 지난 시즌엔 레버쿠젠에 우승을 내주며 4위에 그치는 굴욕을 맛봤다.



10일(현지 시간) 바이에른 뮌헨의 (왼쪽부터)김민재와 토마스 뮐러, 이토 히로키가 분데스리가 33라운드 마지막 홈 경기에서 우승한 후 마이스탈레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7경기에 출전해 뮌헨의 철벽 수비에 기여하고 득점도 두 차례나 올린 김민재는 우승 세리머니에서도 '주연급'으로 대접받았다. 김민재는 골잡이 해리 케인에 앞서 등장해

우승 메달을 받았다. 또 우승 트로피를 들고 야가며 들어 올릴 땐 6번째로 나섰다.

우승 트로피를 가장 먼저 넘겨받은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는 이를 들어 올리지 않고 곧바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기로 한 베데랑 공격수 토마스 뮐러에게 전달했다.

뮐러가 가장 먼저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렸고 선수들은 방방 뛰며 기쁨을 만끽했다. 이어 케인과 수비수 에릭 다이어가 차례로 나섰다.

마이클 올리세, 콘라트 라이머가 다이어의 뒤를 이었고 그다음에 수줍어하던 김민재가 '뽀러' 나왔다.

다이어 등이 목살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끌어당기는데도 난처한 표정으로 버티던 김민재는 결국 동료들의 성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앞으로 나와 트로피 '마이스탈레'를 번쩍 들었다.

김민재는 아킬레스건 부상 여파로 이날 경기에 출전하지는 않았다.

뮌헨은 전반 31분 해리 케인의 선제 골을 앞세워 뮌헨글라트바흐에 2-0 완승을 거두고 우승을 자축했다.

KLPGA 이예원 "저 먼저 2승 가요~"

NH투자증권 챔피언십 2연패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이예원(사진)이 이번 시즌 2승 고지에 맨 먼저 올랐다.

이예원은 11일 경기도 용인시 수원 컨트리클럽 뉴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10억 원)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02타로 우승했다.

지난달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에 이어 이번 시즌 두 번째 우승이다.

이번 시즌 KLPGA 투어에서 시즌 2승은 이예원이 처음이다.

신인왕에 이어 상금왕과 대 상, 평균타수 1위 등 웅만하면 타이틀은 모두가

저본 이예원은 이번 시즌에 꼭 이루고 싶다고 공언한 '다승왕'의 토대를 쌓은 셈이다.

지난 2023년 3승, 작년에 3승을

올린 이예원은 통산 우승도 8승으로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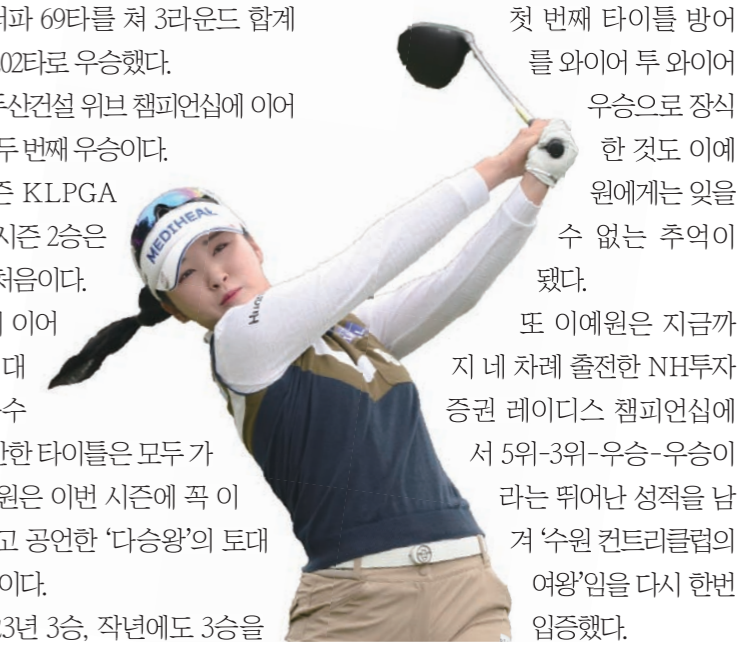
우승 상금 1억8000만 원을 받은 이예원은 상금랭킹 1위(5억2964만 원)와 대 상 포인트 1위를 되찾았다.

작년에 우승했던 이 대회 2연패를 달성한 이예원은 난생처음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는 기쁨도 누렸다.

그는 앞서 4차례 타이틀 방어전에서 한번도 대회 2연패를 이루지 못했다.

첫 번째 타이틀 방어를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장식한 것도 이예원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다.

또 이예원은 지금까지 네 차례 출전한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5위-3위-우승-우승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남겨 '수원 컨트리클럽의 여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I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